	인도네시아(자카르타) 통상사무소 해외동향보고서	작성팀	마케팅지원팀
		담당자	하원정 소장 이영훈 과장
		일시	2022.11.22.

CEPA Insight

- 인도네시아 정부, 11월 9일부터 전자 도착비자(e-VOA) 제도 시행
- 3분기 GDP 연 5.72% 성장, 4분기 연속 연 5% 경제 성장률 기록
- 바이오디젤 “B40” 상용화 추진, 탄소배출 억제·석유 수입 감소 전망

< 2022년 10월 기준 對 인도네시아 교역현황 >

구분	수출액	전년 동월대비 증감율	수입액	전년 동월대비 증감율	무역수지
전국	78,117천불	5.4%	1,194,852천불	29.0%	△413,735천불
충남	52,532천불	△16.0%	49,998천불	△30.0%	2,534천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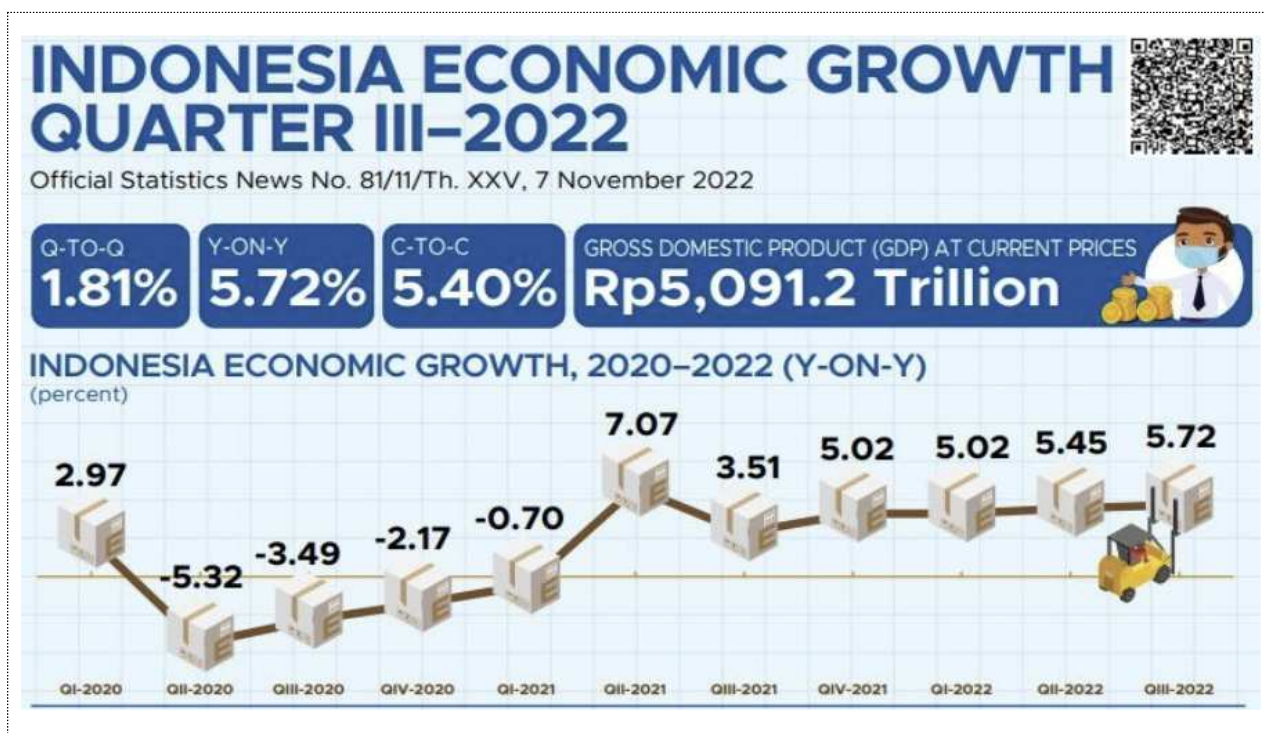
※ 출처: 한국무역통계(<http://stat.kita.net/>)

■ 인도네시아 정부, 11월 9일부터 전자 도착비자(e-VOA) 제도 시행

- 전자 도착비자, 주요 20개국(G20) 정상회의 전에 이루어지도록 준비 완료
- 전자 도착비자 제도를 한국 포함 26개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, 발리 응우라이 국제공항에서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
 - ※ 26개 국가: 한국, 호주, 남아프리카, 미국, 사우디아라비아, 아르헨티나, 네덜란드, 벨기에, 브라질, 덴마크, 인도, 영국, 이탈리아, 일본, 독일, 캐나다, 멕시코, 프랑스, 러시아, 뉴질랜드, 스페인, 스위스, 동티모르, 중국, 터키, 우크라이나
- 전자 도착비자 발급은 출발 전 웹사이트(<https://molina.imigrasi.go.id/>) 활용, 온라인으로 신청·결제·발급 가능
 - ※ 단,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여권, 왕복 항공권, 비자 비용 50만 루피아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(Master, VISA, JCB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) 준비 필수
 - ※ 전자 도착비자는 결제 후 90일 내 사용하여야 하나, 현지 공항 도착 후 현장 비자 발급 병행 진행 가능(출처: 자카르타경제신문, 2022.11.07.)

■ 자원 부국 인도네시아, 3분기 GDP 연 5.72% 성장 기록

- 4분기 연속 5%대 성장, 수출·투자·민간 소비가 성장 견인(출처: 연합뉴스, 2022.11.7.)
- (수출증가) 석탄, 가스, 금, 니켈, 팜유 등 원자재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4분기 연속 연 5%대 경제 성장률 기록하며 탄탄한 성장세 지속
- (해외투자) 외국 자본이 원자재를 현지에서 제품 형태로 가공해 수출하도록 유도하면서 1년 전보다 4.96% 늘어나며 성장세 지속
- (민간소비) GDP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부분에서도 중상위 소득층의 지출 증가에 힘입어 5.4% 증가



< 인도네시아 분기별 경제 성장률(출처: 인도네시아 통계청(BPS), 2022.11.) >

번호	산업	세부항목	기여도
1	제조업	전자, 봉제, 신발, 소비재	19.25%
2	농업, 임업, 어업	농사, 종이, 고무, 어획	13.28%
3	도소매, 무역, 자동차, 오토바이	유통, 수출, 자동차 및 오토바이 판매/수리	12.97%
4	건설	주택, 인프라, 도시, 산업, 체육 등	10.44%
5	광업 및 채석	가스, 석유, 석탄, 니켈, 팜유 등	8.98%

< 산업별 인도네시아 GDP 기여도(출처: Statista, 2022.10) >

■ 인니,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팜유 비중 40% 바이오디젤 상용화 추진

- 바이오디젤 상용화, 탄소배출 억제·석유수입 감소 전망(출처: 연합뉴스, 2022.11.2.)
 - 팜유 수출 1위 국가이자 최대 소비국인 인도네시아는 2018년부터 팜유를 섞은 바이오디젤을 모든 경유 차량과 기계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
 - 아리핀 타스리프 에너지광물자원 장관에 따르면 팜유가 40% 혼합된 바이오디젤 "B40" 주행 테스트가 상당히 고무적이며, 내년 1월에 정식 출시 기대
- ※ 화석연료 사용 감축으로 탄소 배출 및 석유 수입 감소 기대

■ 도내 중소기업의 팜유 생산 관련 기술, 설비 등 현지 진출 기대

- 팜유 직접 생산을 위한 직접 진출보다는 기술 기반의 현지 진출 추천
 - 인니 內 팜유 생산을 위한 직접 진출은 토지 매입, 농지 개간 등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현지 독점 기업들로 인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아 경쟁력이 없음
 - 이에 따라, 팜유 직접 생산보다는 생산 지원을 위한 기술 기반의 현지 진출이 우리 도내 기업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
- 원자재 공급 리스크 대비, 팜유 공급처 포트폴리오 다변화 노력 필요
 - 팜유를 수입하는 도내 기업들은 안정적인 팜유 공급을 위하여 對인니 팜유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, 태국, 방글라데시, 파키스탄 등 인접국으로 부터 수입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음. 끝.